

제 296호 · 2015년 2월 17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아라비안 철도 프로젝트(Etihad Rail Network)의 막힘없는 통관 논의 가속
2. GLP, 중국 난닝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완공
3. CONCOR, 인도 동부해안 8곳에 CFS 건설 예정
4.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 민영화 추진

물류시장동향

1. '아말' 원자력 쇄빙선 백해 운항개시
2. SIBUR와 FESCO, 러시아 톰스크에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예정

공지사항

1. 극동러시아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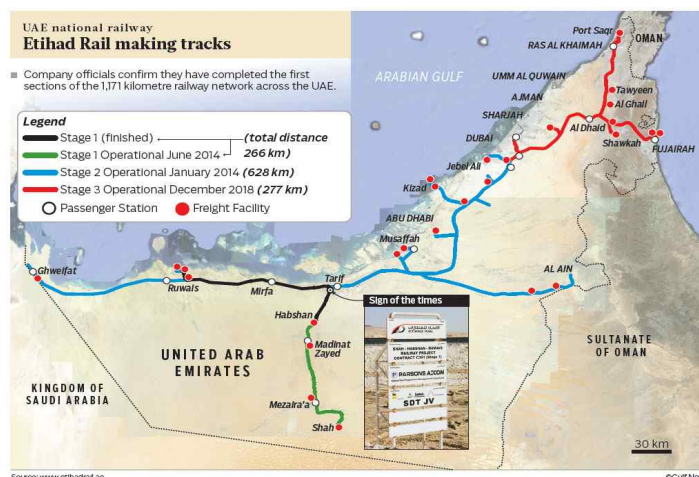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아라비안 철도 프로젝트(Etihad Rail Network)의 막힘없는 통관 논의 가속

- GCC(C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6개국은 향후 지역 물류의 Game changer가 될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국경에서의 막힘없는 이동에 대한 협의를 시작함
 - 현재 제안된 GCC 철도 프로젝트(Etihad Rail Network)는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를 연결하여, 글로벌 제조기업을 유인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 그 간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화물 통관을 위해 지연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나, 최근 국경 없는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추진 중에 있음
 - 통관문제는 국가별로 보안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이면서, 해결이 가장 어려운 이슈이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함
 - 만약 국가별 개별 통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매년 260TEU의 화물이 국경마다 통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운송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
- 그러나 철도운송은 도로운송보다 안전성이 더 높은 수단이며,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해결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아라비안 철도 프로젝트의 1단계는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2단계(628km)는 두바이 제벨알리와 오만 국경까지 연결되면, 마지막 3단계(277km)는 나머지 지역 전체를 연결할 계획임
 - 2018년에 전체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Supply chain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까지도 최종 완공 시점의 실현 가능성, 지역의 강력한 피더네트워크 대비 경쟁력 유무 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 : www.lloydlist.com, 2015.2 / gulfnews.com, 2013.9.

김근섭 부연구위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GLP, 중국 난닝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완공

- 금년 2월 2일 글로벌 물류부동산 개발·운영사 GLP(Global Logistic Properties)의 중국 난닝(南宁) '현대 전자상거래 공업창고센터(이하 물류센터)'가 완공됨
 - 동 물류센터는 난닝 경제개발구 베이부완(北部湾) 과학기술원 내에 위치하며, 운영 후 연간 매출액은 10억 위안, 연간 세수는 3,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동 물류센터에는 이미 Suning, BEST Express, Yunda Express 등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택배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며, 2월 말에는 전문 트럭킹 기업인 DEPPON Logistics, HOAU도 입주할 계획임
- GLP는 동 프로젝트를 포함해 난닝 경제개발구에 총 4억 위안을 투자하여 총 면적 6만 m²에 달하는 자동화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전자상거래, 유통 및 관련 부대서비스 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난닝 경제개발구는 2001년 중국 국무원 승인을 받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서, 난닝 국제공항과 15km, 난닝역과도 약 3km로 인접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남

<난닝 위치 및 GLP 난닝 물류센터 전경>



자료 : GLP 홈페이지(www.glprop.com.cn).

- GLP는 2003년 중국 시장에 진출 한 이후(당시 ProLogis), 현재까지 중국 35개 도시에 총 건축 면적 1,060만 m²에 달하는 물류시설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DHL, UPS, Fedex, 아마존, 월마트 등 주요 글로벌 물류·유통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음¹⁾

자료 : www.cadz.org.cn, 2015.2.4.

김세원 연구원 (☎ 02-2105-2982, ksw@kmi.re.kr)

1) GLP는 ProLogis 아시아 사업부인 ProLogis Asian Operations를 전신으로 하며, 2009년 싱가포르 국영 부동산투자회사인 GIC Real Estate가 ProLogis로 부터 인수한 후 명칭을 Global Logistics Properties로 변경함.

□ CONCOR, 인도 동부해안 8곳에 CFS 건설 예정

- 인도 컨테이너 주식회사(CONCOR, Container Corporation of India)는 인도 동부해안 8곳에 컨테이너 화물조작장(Container Freight Station)을 건설할 예정임
 - 컨화물 전문 기업인 CONCOR는 총 100억 루피의 자금이 투자될 본 사업을 통해 주요 거점에 새로운 컨테이너 수송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수출입 화물운송 처리와 화물혼잡 완화, 작업효율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CONCOR는 향후 인도 전역에 철도 화물 터미널과 화물 기지, 그리고 컨테이너 기지(Container Depots) 확보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임
- 새로 건설 될 8곳의 CFS 중 4곳은 오디샤(Odisha)주(州), 3곳은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에,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타민나두(Tamil Nadu)주에 건설될 예정임
 - 이들 8개의 CFS는 향후 2년 내에 완공 되거나 공사가 진행 될 예정임
 - 오디샤 주에 건설될 4곳의 CFS는 각각 잘수구다(Jharsuguda), 파르장(Parjang), 두버리(Duburi), 무니구다(Muniguda) 지역임
 - 또한 안드라 프라데시주(州)에는 비사카퍼트남(Visakhapatnam), 카키나다(Kakinada), 그리고 크리쉬나파트남(Krishnapatnam) 지역에 CFS가 건설될 예정임
- CONCOR의 Kalyana Rama 사장은 인도 동부해안의 항만들이 혼잡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본 CFS는 인도 동부의 관문이 되는 항만들과 연계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밝힘
 - CONCOR는 인도 컨테이너 운송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 CFS를 건설기로 결정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인도 무역의 증진과 다양한 산업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CONCOR의 CF의 예정 부지는 모두 확정된 상태로, 지역 사정에 따라 인도 정부로부터 매입 및 임대 형태로 부지를 사용하게 될 예정임
 - 현재 CONCOR는 총 48개의 컨테이너 내륙기지 및 화물 기지를 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약 3백만 TEU를 처리하고 있음

자료 : www.transreporter.com, 2015.2.6.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 민영화 추진

- 그리스 신(新) 좌파 정부는 최근 국제채권단의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그리스 최대 항만인 피레우스(Piraeus) 항만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함
 - 피레우스 항만은 유럽-중동-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전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춘 그리스의 핵심 항만임
 - 전략적 요충지인 피레우스 항만의 민영화 추진 전략은 그리스 내에서도 관심이 높으며, 민영화 추진과 반대 의견이 계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음
- 최근까지 그리스 신정부는 피레우스 항만 및 국유재산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피레우스 항만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음
 - 이전 정부는 Cosco-APM 터미널과 ICTSI(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 Inc.)를 피레우스 항만 운영사로 선정했으나, 최근 매각 작업을 중단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PM 터미널의 Tom Boyd 대변인은 “APM 터미널은 피레우스 항만 민영화 추진에 대한 그리스 신정부의 향후 계획을 기다리고 있으며, 항만 민영화는 그리스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기회로 사료된다”고 언급함

<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 전경 >



자료 : air.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2.11.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

물류시장동향

□ '야말' 원자력 쇄빙선 백해 운항개시

- 러시아 국가 원자력 쇄빙선사 '아톰플로트'의 원자력 쇄빙선 '야말'이 2월 9일부터 백해에서 운항을 개시함
 - 이 쇄빙선은 바렌츠해에서 드빈스키만과 칸달라크쉬스키만까지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을 도울 예정임
 - 쇄빙선 운항은 발틱해와 백해의 도선을 기준으로 '로스모르포르트'와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 '야말' 쇄빙선은 올해 3월 말까지 백해에서 쇄빙업무를 마친 뒤 무르만스크로 회항함
 - 4월 초부터는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요청에 의해 카라해와 랍텡츠해에서 운항될 예정임

자료 : www.portnews.ru 2015.2.9

이하림 연구원 (☎ 02-2105-2954, harimyi@kmi.re.kr)

□ SIBUR²⁾와 FESCO, 러시아 톰스크에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예정

- '톰스크네프테힘'(SIBUR 자회사)이 1만 평방미터 규모의 장치장 및 철도 복합운송이 가능한 새로운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임
 - 터미널의 설계 및 시공은 FESCO의 자회사인 '트란스가란트'가 맡을 진행할 예정임
 - 이 터미널에는 일시에 1000TEU를 장치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 크레인이 설치되고 철도 인접 선도 주변 역에 연결될 예정임
- 톰스크의 새로운 현대식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은 '톰스크네프테힘'사의 생산능력 확대 계획과 연계되어 결정된 것임

자료 : www.portnews.ru 2015.2.9.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

2) SIBUR사는 러시아 석유화학 기업으로 2,000가지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인프라 관련 된 홀딩회사도 보유하고 있어 운송업에도 종사하고 있음

< 극동러시아 투자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 설명회 >

□ 목적

-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행방안 모색을 위해
-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 진행상황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연구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설명회를 가지고자 함

□ 개요

- 일 시 :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13:30 ~ 16: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 2층)
- 주 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후 원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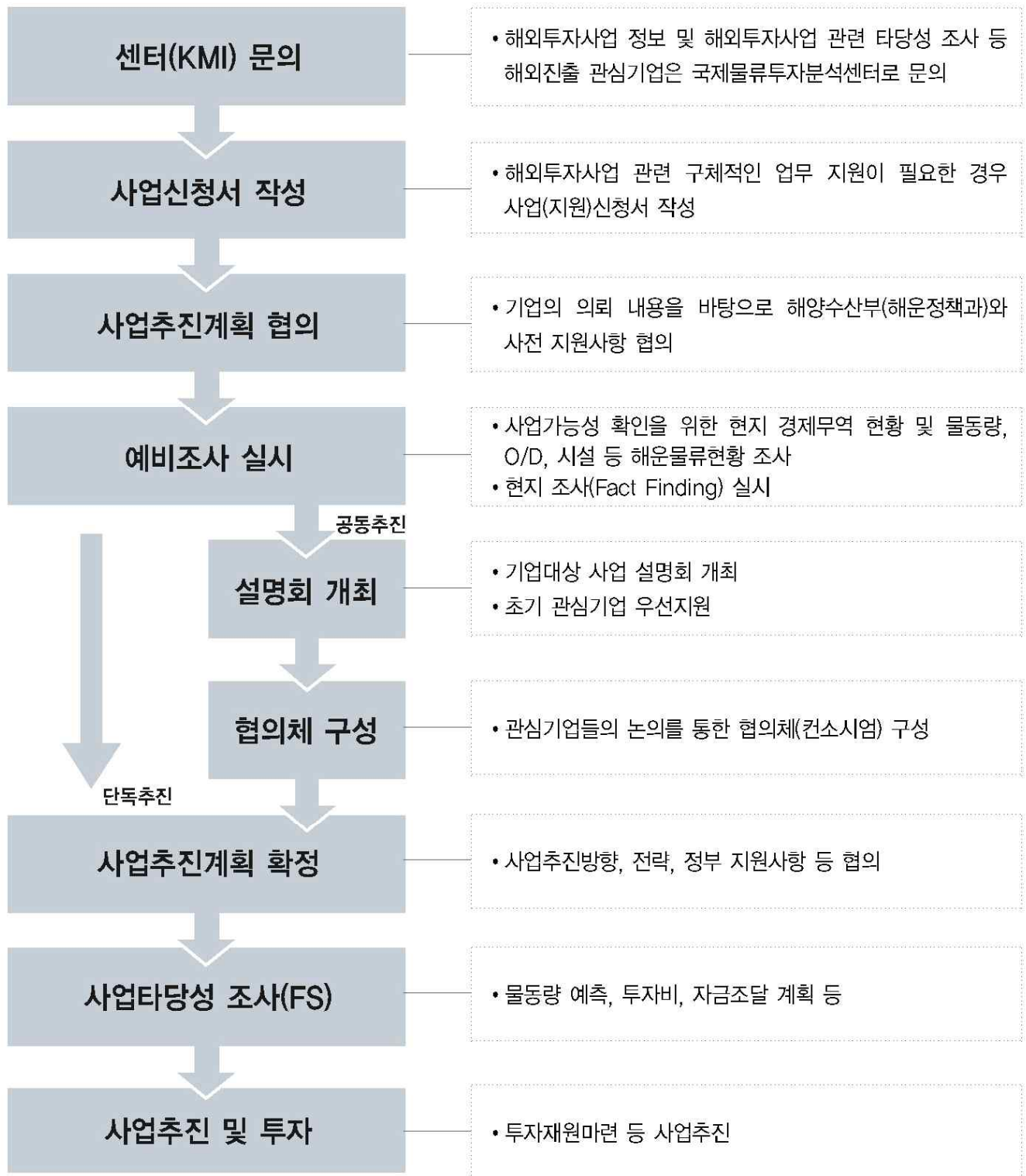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시간 및 식순	세부 프로그램
리셉션 (13:30 - 14:00)	참석자 등록
개막식 (14:00 - 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축사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기념사진 촬영
제1세션 (14:20 - 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경제 최근 동향 및 전망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유라시아팀장 • 극동 선진개발구(TAD) 현황 및 계획 알베르트 라키포프, 극동개발부 부국장 • 질의 · 응답
커피 브레이크 (15:10 - 15:30)	Coffee Break
제2세션 (15:30 - 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러시아 가능 비즈니스 모델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 질의 · 응답
폐회 (16:30)	폐회선언

□ 사전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 접 수 처 : 선찬순 이메일 접수 usea1004@kmi.re.kr / jso@kmi.re.kr
- 문 의 : KMI 국제물류연구실 김은미 연구원 Tel. 02-2105-2835
KMI 국제물류연구실 고재성 연구원 Tel. 02-2105-2842

※ 주차권 발행이 안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